

1세 미만·임산부 의료비 경감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인상

신규 500세대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장애 등급제 폐지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상여금·복리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2019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육아·여성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 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도 월 35만원으로 인상

교육·보육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

고용



건설기계 특수고용직·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조세·금융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2008년 이전 최초 등록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 감면



주택 중부세 최고세율 3.2%로 상향 조정

- 주택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름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함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

- 인천공항에서 시범 도입된 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시행 예정



근로장려금 지급총액 3배로 확대

- 지급 요건 중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
- 연소득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 현재 1~10등급으로 구분된 개인 신용등급, 1~1천점으로 세분하는 점수제로 전환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기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



여성·육아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기존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됐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 지금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겹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교육·보육

▲ **저소득층 초·중·고등 교육급여 인상** =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23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연 2회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 학교 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인정도서가 4월 도입될 예정이다. 학교 교실과 과목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특성학교 학생 등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된다.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개 운영** =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현재 23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의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단위 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된다.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 기존에 재량사항이었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월부터는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져 공공보육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

▲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 시행** = 내년부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이 열린다. 산지 경매사는 위판장에 올라온 수산물을 대상으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며, 경락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산지 경매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모의 경매 실기시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한다.

▲ **수산물직불금 5만원 인상...어가당 65만원** = 정부는 도서 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 불리 수산물직불금을 올해보다 5만원 오른 어가당 65만원씩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업생상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업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다. 수산물직불금은 2020년까지 연 7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 굴비와 생굴이 이달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품목에 들어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에서 파는 굴비와

생굴에 우선 추진한 뒤 연차별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이뤄져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 **도서관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 지역에 사는 주민은 1천cc 미만 경형 승용차는 50%, 1천600cc 미만 소형 승용차는 30%까지 여객선 차량 운임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금까지는 도서관 명의 비영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서에 주민등록 된 후 30일이 지난 자의 명의로 등록되고, 도서관 주민이 100%인 차량이다.

조세·금융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생긴다. 비과세는 24개월 한도 내에서 복무 기간에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다. 2021년 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발전용 유연탄 소비세율 인상·천연가스는 인하** = 발전 연료가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 변경된다.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보건·사회복지

▲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원~60만원, 다태아 90만원→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 **돌봄서비스 종사자 보수 인상**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4대 돌봄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돌봄종사자 약 13만명의 보수가 올라간다. 내년 7월부터는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1만5천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 상반기에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하에 해당 검사가 필요한 환자 누구나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 1월부터는 산모가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구 월 363만원)에서 100%(월 452만원)로 확대된다. 기존 완화에 따라 지원 대상은 8만명에서 11만7천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 그동안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이 7월 폐지되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는 구분기로 했다. 주요 돌봄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산림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정부는 산림 훼손,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산지 태양광발전전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억제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대로 복구해야 한다.

▲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인식기 도입**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된다. 그간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재신검 장소 본인선택 확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질병 악화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때는 주소지와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비롯해 최초 검사받은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 과천과 광명, 군포, 안양, 의왕, 하남 등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질병, 심신장애,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받아야 했다.

▲ **민생현장 등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초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고자 새해부터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5천명을 추가 배치한다. 새해에는 경찰관서의 민원 안내 지원 등에 3천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에 1천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와 소방안전체험 교육에 350명을 각각 추가 배치한다.

고용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에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2019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지만, 2019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 정부는 구직정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연합뉴스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KCPBA 2016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우수상 수상
2011 프리미엄브랜드대상 PREMIUM BRAND AWARD WINNER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신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